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Kyklades Maritime mulls \$412m order for LNG-fuelled VLCCs

현대중공업이 그리스의 Kyklades Maritime으로부터 LNG Dual-fuel VLCC 2+2척 수주가 임박했다고 보도됨. 계약 성사 시 척 당 선가는 1.03억달러이며 2022년부터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Shell사에 용선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TradeWinds)

Shell lays out a decarbonisation road map for shipping

슈퍼 오일 메이저 Shell이 해운업에서의 탈탄소화(Decarbonization)를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됨. Shell사가 발표한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IMO(국제해사기구)의 탈탄소화 로드맵을 표방했다고 보도됨. LNG연료에 대해서는 향후 30년 이상 친환경연료로서 각광받을 전망이라고 밝힘. (TradeWinds)

Contractors set to chase Aramco offshore trio

Aramco의 Long-term agreement(LTA) 계약 대상자들이 7월 말까지 세 개의 Oil & gas 프로젝트 재개발 프로젝트에 입찰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해당 프로젝트는 Contract Release Purchase Order(CRPO) 62, 63, 65로 보도된 바 있으며, 현대중공업 또한 LTA 계약 대상자로서 입찰여부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됨. (Upstream)

6월 발주량 10년 만의 최저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6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82만CGT(30척)로 5월 65만CGT(31척) 대비 +26% 증가했으나 전년동기대비 51% 수준에 그쳤다고 보도됨. 국가별 수주량은 중국이 46만CGT(56%), 한국 25만CGT(30%), 대만 4만CGT(5%) 순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싱가포르 리그 수주 가뭄 2년 더

싱가포르 조선업계의 리그선 수주 가뭄이 앞으로 2년은 더 지속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낙관편향적으로 봐도 2021년 상반기에나 수주가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됨. 이는 글로벌 경제가 다시 회복된다해도 석유 수요의 약세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세진중공업, 국내 LNG 탱크 시장 독주하나

울산 세진중공업은 7일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LNG병커링선의 탱크를 초도 수주했다고 밝힘. 올해만 LNG 탱크 8기를 수주하며 LNG 탱크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됨. 세진중공업은 지난해 LNG 사업에 본격 진출한 후 LNG운반선 저장탱크, LNG추진선 연료탱크를 차례로 수주하고 있다고 알려짐. (뉴시스)